

踏山歌



[해제]

양택과 음택이 자리한 곳의 풍수를 통해 인간의 길흉화복을 예견한 풍수지리가사이다. 즉 그 내용은 갖가지 좌향(坐向)의 간룡(看龍), 장풍(藏風), 득수(得水), 정혈(定穴) 등을 통해 그곳에 터를 잡은 사람의 당대와 후대의 길함과 흉함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다. 작자와 제작 시기는 알 수 없다. 3·4조와 4·4조를 혼용하였으며, 4음보 1행 단위 190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옮긴 대본은 한지에 귀글체로 필사되어 있는데, 맨 앞에 <답산가>라는 제목이 적혀 있고 전체 8장으로 되어 있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 내용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뒷부분이 일부 낙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문]

踏山歌

乾亥方 슬퍼보소 土山插天 最貴로다
 長壽도 하려니와 善馬乙 ㅅ느니라
 壯元及第 府院君은 壬亥方이 막켜구나
 니제야 四方山乙 두로다 論難하니
 丙丁方이 高秀하고 積石니 疊疊하면
 직조도 공교하고 壯元郎이 長壽하리
 庚兌方니 躑躑하면 버슬아치 昇次로다
 寅方恠石 喪妻하고 庚兌惡石 瘟死하니
 壬坎艮니 점점하야 庚甲乙相對하면
 장흥도 장하드니 中試及第 하단말가
 乙辰方이 高壓하고 大惡石이 버어시면
 官灾傷寒 소분지라 奴殺其主 하단말가
 乙辰窺峰 아르스다 奴子으게 失女로다
 十里乙重 疊하면 逃亡奴婢 절노오고
 만일여 空決하면 使嗅奴婢 다듯느이
 寅方이 空虛하면 文才도 虛老하고
 子孫이 잇다흔들 흰죽스발 면하소야
 申峯이 高壓하이 病患不絶 어이홀고
 巫黨방을 다하드니 쇠경막씩 ㅅ어든다
 멀이보여 高壓하면 男女才能 불버홀가
 坤未方이 相左하면 爭訟是非 조와하네
 土山이重 疊하면 方富子孫 나논이라
 만일未坤 空虛하면 奴婢散亡 無數하다
 ㅅ슬퍼보소 恠惡石은 官灾殺人 어이홀고
 만일殺人 안니하면 他人手여 죽느이라
 高峰山이 重疊하면 ㅅ메나리 어지이라
 未坤方이 高秀하야 艮峰과 相對對하면
 新科도 잘맞치고 女子息이 一色이라

戌方의 大惡石은 스스이 밍거니와
 술주정 므슴일고 官災로 爲敗한다
 乙辰方 破落砂은 缺唇이 나느이라
 前後左右 돌이여든 案石帽笏 슬퍼보소
 丙丁方이 느진후여 艮方만 秀出하면
 少年初試 비록하나 大小成功 어려운이
 靑龍안어 鍊端石은 當代乘轎 어려올가
 쏘보소 戌方窺峰 남의계 죽단말가
 戌方의 조은端石 四方財物 ㅅ어온다
 巳午方 窺山이면 官災도 일거이와
 火災乙 어이하며 牛馬盜賊 無數하야
 더고나 大惡石이 늬여시 드레오면
 어엇썬그 미조손 ㅅ암물녀 죽다말가
 ㄱ은물 ㄱ는기리 ㄱ은砂乙 ㅅㄱ지고
 巳方乙 드레오면 棺中蛇簾 어이홀고
 丙午方 馬體보소 조흔물 썬나잔니
 무섭다 酉方무리 卯山乙 드레오면
 참혹한 그집음형 익익흔디 지옴느고
 卯酉方 兄弟峯은 兄弟及第 흥기한다
 甲方만 高秀하고 庚兌方이 空虛하며
 庚兌方이 高秀하고 甲方이 空虛하면
 初試에 敗家하고 혼얼흙도 못가느니
 庚甲方이 相對하야 丙丁과 高秀하면
 巽辛이 ㄱ자셔셔 木火體立 插天하면
 早年進士 ㄱ못홀고 武邊及第 나느구나
 子寅丑峯 조와마소 巳酉午峰 헛거시다
 靑龍이 決鬪하야 形相이 絲如하면
 無後흔저 長子孫아 어엇비도 일죽거다
 中男無后 무삼닐고 腰絶靑龍 越見이라
 죽곰죽곰 의디의디 石角이 내려시면
 貴不可言이리 代代로 榮昌이라
 立石이 端如하야 龍虎의 相對하면
 子孫니 興盛하고 奴婢도 닐거이와
 靑龍白虎 反背하면 子孫究困 도망홀가
 進筆案九曲水은 奴婢田地 無數하다
 直走水掃 田砂은 奴婢田地 다파느고
 穴前의 우느무리 淙淙하야 ㅅ殺하니
 子孫 굴머안자 ㅅ초느 소리로다

水口의 큰물소리 퐁퐁하야 느래지면
 귀지우려 들어보소 關閉門 소리로다
 回竜顧祖 오느무라 當代發朴 어디가리
 案과무리 依抱하면 千里가도 다조흔니
 穴前의 싯흔똥이 싯기싯기 端妙하면
 발늬푼 ㄱ진상의 ㄴ그릇 빗치로다
 穴前의 鍊端石은 高官大爵 절로오고
 저오는 저寅水야 穴前乙 싯지마라
 溺水死 바러두고 暴雷死 도망하라
 乙辰水 어른이는 奴主溺死 한다하느
 괴가튼 돌이이서 穴前의 엽저디면
 子孫의 胃腹痛을 밤나취로 응그린다
 범곳튼 돌이이서 설전의 앙앙하면
 子孫의 殺人이야 어디가 回避하리
 主後의 窺山니서 늬어시 陰險하면
 路中의 逢刀變乙 子孫이 어니홀이
 明堂前의 凶石니서 속내미러 崑崑하면
 子孫의 불티귀 흑내민 즈시로다
 龍內의 抱頭砂와 虎內의 直刀砂은
 凶흉도 승하다느 니을말이 업거이와
 懸欽砂 ㄱ은카리 左右의 冲穴하면
 子孫의 深根흔병 침마느 즈시로다
 龍虎頭 對冲하면 一家不睦 니아닌가
 龍虎短이 反走하면 益是子孫 移舍로다
 어불승 結項決ㄴ 무승연고 저러흔고
 寅方丑方 兩處上여 虎蹲石과 牛頭岩乙
 눈쓴소경 우링이라 못가히여 그려타느
 主山의 거복똥과 穴前의 거복똥은
 子孫의 榮華富貴 萬代여 싯여질가
 穴低하고 案高하디 惡石이 壓臨하면
 落馬敗死 더욱섭다 無病키乙 발힐손야
 當穴四圍 鍊端石은 石崇유여 代代나며
 靑龍肩甲 鍊端石은 堂上官이 代代로다
 未坤方 凶흔똥리 陰陰하야 疊疊하면
 項瘡도 위티하고 大風瘡疾 어이하리
 卯山의 寅水이서 질과흙기 드러오면
 殺氣도 만커이와 一家咀呪 이러느다
 疋穴하려 드러갈제 上下分別 자셔보쇼

主脉 절롭거든 우희가 穴乙 초고
 主脉이 지러거든 아희가 차자보쇼
 우희가 피흘거신 못쳐드러 凹風이요
 아희가 취할거신 實흔디을 차자드쇼
 墟中의 白土어든 白疾의 죽단말가
 좃불근 기리어든 赤疾의 下血하느니
 墟中의 나난土色 검다고 다바릴가
 디저라 직穴法이 黃土細沙 몬져보느니
 正穴乙 아라거든 明堂乙 초자보쇼
 巽方의 虎蹲石은 子孫大惡 나거니와
 巽方의 金星体는 天下壯士 나단말가
 巽方의 獨山이서 박그치 업저시면
 食根 잠관이나 無極乙 어니흘이
 水案이 서로드려 靑龍內의 가직하면
 고틡다 代代마다 長孫榮華 써날소냐
 水口비록 멀지라도 關塞하면 直穴이요
 寅艮未坤 空虛말며 乾亥坎癸 空虛마소
 長孫의 死生吉凶이 方位에 익연나니
 庚兌方이 空虛하면 女子孫이 위티하고
 丙丁方이 空虛하면 男子孫이 망하나니
 方位비록 空决하나 泰山이 멀리이시면
 계우썰만 하거이와 글로보되 다부릴가
 丑峯 | 秀出하면 中男壯士 나단말가
 丙丁 | 秀出하면 長男壯士 난다하느니
 丙丁山根 들쳐시면 代代치통 쓴찬하느니
 丙丁方 石井보쇼 女孫압피 불어진다
 子孫客死 무슴일고 竜前餘氣 冲断이라
 子孫蹇足 무삼일고 穴前白虎 傾側이라
 靑龍仄面 墳宅이면 中風蹇足 가난하고
 白虎仄面 墳宅이면 쏘자식이 전탈이라
 未坤方窺 山이면의 괴썰음 분흔다
 子方의 다물뚝은 鼠廉貞乙 불러들고
 亥方의 群猪岩은 猪廉貞乙 부러들고
 子孫의 塊病이야 어디가 면흘손야
 穴前의 針羅砂은 疔瘡乙 呻吟하고
 左右의 四冲砂은 刑戮의 다죽난다
 乙辰水 當冲하면 喪敗官灾 수이실가
 모든슈세 슬유하면 궁잔을 어니하리

龍의게 숨긴거슨 水與玉이 그아닌가
 虎의게 숨긴거신 狗與獐이 그안닌가
 馬形의 草乙보고 牛形의구 시乙보쇼
 狗形의 虎山이요 巳形의 머구리라
 猪形 마진거실 仔細보와 案乙차소
 案山이 멀작시면 가직흔 물乙보쇼
 案과龍虎 멀거드면 三代後의 發社하고
 가직이서 점점하야 千里外에 杻첩하면
 錦衣에 싸인子孫 華蓋로 다이난니
 현두덕이 심흔지시 案山의 걸여시면
 子孫의 懸鶉百結 인솔난 즈시로다
 乾方과 丙午魚袋 一道人將 한다하넌
 水魚袋金 魚袋는 제方位로 차자보소
 方位안니 寅砂즈슨 첫보는 木杓形과
 穴前餘氣 업진瓢砂 解胎夫人 半튼죽넌
 白虎의 巖 혼돌이넌 버리고선 논즈시
 무섭다 그밋子孫 骨肉相殘 하리로다
 穴後의 길리이서 子良寅方 相通하니
 엽다야 그밋子孫 淫行乙又 취소하단
 案山의 掀裙砂은 물이이서 潤濕하면
 어수룩흔 그중놈 안상전을 도적하단
 兌方의는 惡石니요 寅方의는 기리느니
 의위에 百日內의 殺人하고 죽단말가
 案山의 다물뚝은 大災에 타자죽고
 天乙太乙 疊 疊하면 高官大爵 代代로다
 宰相峰 슬퍼보소 領相도 수이느넌
 巽峰이 넘피셔도 톱긋티 차타하면
 버슬하던 그밋子孫 톱에써여 죽단말가
 乙辰方 차타하면 車裂하야 죽단말가
 丙午方 窺石이면 火刑을 만닌단니
 怪惡石과 窺見峯니 乾亥方의 잇거디면
 火災는 小分지라 斷頭환이 문듯느넌
 乙辰方 진에지시 잡되이 열켜시면
 棺中의 드는거시 蜈蚣廉貞 凶惡하단
 未坤의 돌이놓고 穴當이나 차시면
 棺中廉貞 무어신고 나락썰리 그득초넌
 案山의 葛은砂角 葛根그티 종횡하면
 棺中의 凶흔거시 木根이 어지렀다

午方水 번듯하야 當前을 우러드니
子孫의 죽는거시 농의손이 죽단말가
子向山 午方水은 染疾의 죽거이와
艮向山 乾艮水은 발복이 색로도다
坤向山下 乾水은 百日內의 應이나고
壬向山 艮得水은 當代發福 분티하넌
丁兌向 丙丁得水 富貴을 可知로다
乙辰方 長生破나 海水는 無妨하고
未坤亦是 長生破나고 塞하면 무병하니
午破또한 그러하나 土星이면 씌거시오

[현대역]

건해방(乾亥方) 살펴 보소 토산삽천(土山插天) 최귀(最貴)로다
 장수(長壽)도 하려니와 선마(善馬)를 타느니라
 장원급제(壯元及第) 부원군(府院君)은 임해방(壬亥方)이 막혔구나
 이제야 사방(四方) 산(山)을 두루 다 논란(論難)하니 병정방(丙丁方)이 고수(高秀)하고 적석(積石)이 첩첩(疊疊)하면
 재주도 공교하고 장원랑(壯元郎)이 장수(長壽)하리
 경태방(庚兌方)이 준준(蹲蹲)하면 벼슬아치 승차(昇次)로다
 인방괴석(寅方怪石) 상처(喪妻)하고 경태악석(庚兌惡石) 온사(瘟死)하니 임강간(壬坎艮)이 첩첩하여
 경갑(庚甲)을 상대(相對)하면
 장하기도 장하다네 중시급제(中試及第) 한단 말가
 을진방(乙辰方)이 고압(高壓)하고 대악석(大惡石)이 벌였으면 관재상한(官災傷寒) 소분(小分)인지라
 노살기주(奴殺其主) 한단 말가
 을진규봉(乙辰窺峰) 알아 선다 노자(奴子)에게 실녀(失女)로다
 십리(十里)를 중첩(重疊)하면 도망노비(逃亡奴婢) 절로 오고 만일에 공결(空決)하면 사후노비(使嗅奴婢) 다 달느니 인방(寅方)이 공허(空虛)하면 문재(文才)도 허로(虛老)하고 자손(子孫)이 있다한들 흰족
 사발 면할소냐
 신봉(申峯)이 고압(高壓)하니 병환부절(病患不絕) 어이할고 무당(巫黨) 방을 달으니 소경막대 끼어든다
 멀리 보여 고압(高壓)하면 남녀재능(男女才能) 불비할까
 곤미방(坤未方)이 상좌(相左)하면 쟁송시비(爭訟是非) 줄아 하네
 토산(土山)이 중첩(重疊)하면 대부자손(大富子孫) 나느니라
 만일 미곤(未坤) 공허(空虛)하면 노비산망(奴婢散亡) 무수(無數)하다
 또 살펴 보소 괴악석(怪惡石)은 관재살인(官災殺人) 어이할고 만일 살인(殺人) 아니하면 타인(他人) 손
 에 죽느니라
 고봉산(高峰山)이 중첩(重疊)하면 새 며느리 어지리라
 미곤방(未坤方)이 고수(高秀)하여 간봉(艮峰)과 상대(相對)하면 신과(新科)도 잘 맞추고 여자식(女子
 息)이 일색(一色)이라
 술방(戌方)의 대악석(大惡石)은 일마다 밍거리와 술주정은 무슨 일고 관재(官災)로 패망한다
 을진방(乙辰方) 파락사(破落砂)는 결순(缺唇)이 나느니라
 잔후좌우(前後左右) 돌이거든 안석모홀(案石帽笏) 살펴 보소
 병정방(丙丁方)이 낮은 후에 간방(艮方)만 수출(秀出)하면 소년초시(少年初試) 비록하나 대소성공(大小
 成功) 어려우니
 청룡(靑龍) 안은 연단석(鍊端石)은 당대승교(當代乘轎) 어려울까
 또 보소 술방규봉(戌方窺峰) 남에게 죽단 말가 술방(戌方)의 좋은 단석(端石) 사방재물(四方財物) 끼어
 온다 사오방(巳午方) 규산(窺山)이면 관재(官災)도 일거리와 화재(火災)를 어이하며 우마도적(牛馬盜
 賊) 무수(無數)하여 더구나 대악석(大惡石)이 슬며시 드리우면 어여쁜 그미 자손 배암 물려 죽단 말가
 가는 물 가는 길이 가는 사(砂)를 깨 가지고 사방(巳方)을 들어오면 관중사렴(棺中蛇簾) 어이할고
 병오방(丙午方) 마체(馬體) 보소 좋은 물 떠나지 않네 무섭다 유방(酉方) 물이 묘산(卯山)을 드리우면

참혹한 그 집 음행 애매한 데 지었는고

묘유방(卯酉方) 형제봉(兄弟峯)은 형제급제(兄弟及第) 함께 한다

갑방(甲方)만 고수(高秀)하고 경태방(庚兌方)이 공허(空虛)하며 경태방(庚兌方)이 고수(高秀)하고 갑방(甲方)이 공허(空虛)하면 초시(初試)에 패가(敗家)하고 한 걸음도 못 가느니

경갑방(庚甲方)이 상대(相對)하여 병정(丙丁)과 고수(高秀)하면 손신(巽辛)이 가까이 서서 목화체위(木火体立) 삼천(挿天)하면 조년진사(早年進士) 뉘 못할까 무변급제(武邊及第) 나는구나

자인축봉(子寅丑峯) 줄아 마소 사유오봉(巳酉午峰) 헛것이다

청룡(靑龍)이 결궐(決闕)하여 형상(形相)이 사여(絲如)하면 무후(無後)한 저 장자손(長子孫)아 어여뻐도 일찍 죽는다

중남무후(中男無后) 무슨 일고 요절청룡(腰絶靑龍) 월견(越見)이라 즉금즉금 미대미대 석각(石角)이 내렸으면

귀(貴)함이 불가언(不可言)이리 대대(代代)로 영창(榮昌)이라

입석(立石)이 단여(端如)하여 용호(龍虎)를 상대하면 자손(子孫)이 흥성(興盛)하고 노비(奴婢)도 늘거니와 청룡백호(靑龍白虎) 반배(反背)하면 자손노곤(子孫勞困) 도망할까

진필안(進筆案) 구곡수(九曲水)는 노비전지(奴婢田地) 무수(無數)하다

직주수(直走水) 소전사(掃田砂)는 노비전지(奴婢田地) 다 파는고 혈전(穴前)에 우는 물이 종종(淙淙)하여 씩씩하니 자손(子孫)이 굶어 앓아 혀 차는 소리로다

수구(水口)의 큰 물소리 퐁퐁하여 내려지면 귀 기울여 들어 보소 개폐문(開閉門) 소리로다

회룡고조(回龍顧祖) 오는 물아 당대발복(當代發福) 어디 가리 안(案)과 물이 의포(依抱)하면 천리(千里) 가도 다 좋으니

혈전(穴前)에 쌓은 돌이 땀기땀기 단묘(端妙)하면 발 높은 갖은 상의 늦그릇 빛이로다

혈전(穴前)의 연단석(鍊端石)은 고관대작(高官大爵) 절로 오고 저 오는 저 인수(寅水)야 혈전(穴前)을 쓰지 마라

익수사(溺水死) 버려두고 폭뢰사(暴雷死) 도망하라

을진수(乙辰水) 얻은 이는 노주익사(奴主溺死) 한다 하네

괴 같은 돌이 있어 혈전(穴前)에 엮드리면 자손(子孫)이 흉복통(胸腹痛)을 밤낮으로 응그린다

범 같은 돌이 있어 혈전에서 양양하면 자손(子孫)의 살인(殺人)이야 어디 가 회피(回避)하리

주후(主後)의 규산(窺山) 있어 슬머시 음험(陰險)하면 노중(路中)의 봉도변(逢刀變)을 자손(子孫)이 어이 하리

명당(明堂) 전(前)에 흉석(凶石) 있어 똑 내밀어 외외(嵬嵬)하면 자손(子孫)의 볼테기에 흑이 내민 모양이다

용내(龍內)의 포두사(抱頭砂)와 호내(虎內)의 직도사(直刀砂)는 흉(凶)하기도 흉하다네 이을 말이 없거니와 현침사(懸針砂) 같은 칼이 좌우(左右)의 충혈(冲穴)하면 자손(子孫)의 심근(深根)한 병 침 맞는 모양이다

용호두(龍虎頭) 대충(對冲)하면 일가불목(一家不睦) 이 아닌가

용호단(龍虎短)이 반주(反走)하면 더욱 자손(子孫) 이사로다

아벨싸 결항결망(結項決亡) 무슨 연고 저러한가

인방(寅方) 축방(丑方) 양처상(兩處上)의 호준석(虎蹲石)과 우두암(牛頭岩)을 눈 뜬 소경 우맹이라 못

가리어 그렇다네

주산(主山)의 거북 돌과 혈전(穴前)의 거북 돌은

자손(子孫)의 영화부귀(榮華富貴) 만대(萬代)에 끊어질까

혈저(穴低)하고 안고(案高)한데 악석(惡石)이 압림(壓臨)하면 낙마패사(落馬敗死) 더욱 쉽다 무병(無病)키를 바랄소나

당혈사위(當穴四圍) 연단석(鍊端石)은 석송(石崇) 여유 대대(代代) 나며 청룡견갑(靑龍肩甲) 연단석(鍊端石)은 당상관(堂上官)이 대대(代代)로다

미곤방(未坤方) 흉(凶)한 돌이 음음(陰陰)하여 첩첩(疊疊)하면 항종(項瘰)도 위태하고 대풍창질(大風瘡疾) 어이 하리

묘산(卯山)의 인수(寅水) 있어 길과 함께 들어오면 살기(殺氣)도 많거니와 일가저주(一家咀呪) 이렇구나

제혈(穴)하러 들어갈 제 상하분별(上下分別) 자세 보소

주맥(主脉)이 짧거든 위에 가 혈(穴)을 찾고 주맥(主脉)이 길거든 아래로 가 찾아 보소

위에 가 피할 것은 묻혀 들은 요풍(凹風)이요

아래로 가 취할 것은 실(實)한 데를 찾아 들소

허중(墟中)의 백토(白土)거든 백질(白疾)에 죽단 말가

질붉은 길이거든 적질(赤疾)에 하혈(下血)하네

허중(墟中)에 나는 토색(土色) 검다고 다 버릴까

대재(大哉)라 저 혈법(穴法)이 황토세사(黃土細沙) 먼저 보네

정혈(正穴)을 알았거든 명당(明堂)을 찾아 보소

손방(巽方)의 호준석(虎蹲石)은 자손대악(子孫大惡) 나거니와 손방(巽方)의 금성체(金星體)는 천하장사(天下壯士) 난단 말가

손방(巽方)의 독산(獨山) 있어 박 같이 옆드리면 식근(食根)은 잠깐이나 무극(無極)을 어이 하리

수안(水案)이 서로 들어 청룡내(靑龍內)에 가까우면

기특하다 대대(代代)마다 장손영화(長孫榮華) 떠날소나

수구(水口) 비록 멀지라도 관새(關塞)라면 직혈(直穴)이요

인간미곤(寅艮未坤) 공허(空虛) 말며 건해감계(乾亥坎癸) 공허(空虛) 마소

장손(長孫)의 사생길흉(死生吉凶) 이 방위(方位)에 매었나니 경태방(庚兌方)이 공허(空虛)하면 여자손(女子孫)이 위태하고 병정방(丙丁方)이 공허(空虛)하면 남자손(男子孫)이 망하느니 방위(方位) 비록 공결(空決)하나 태산(泰山)이 멀리 있으면 겨우 쓸만하거니와 그로 보되 다 버릴까. (丑峯)이 수출(秀出)하면 중남장사(中男壯士) 난단 말가

하면 중남장사(中男壯士) 난단 말가

병정(丙丁)이 수출(秀出)하면 장남장사(長男壯士) 난다 하네. 산근(丙丁山根) 들쳤으면 대대(代代) 치통 끊이지 않네

병정방(丙丁方) 석정(石井) 보소 여손(女孫) 앞에 부러진다

자손객사(子孫客死) 무슨 일고 용전여기(龍前餘氣) 충단(冲斷)이라.

자손건족(子孫蹇足) 무슨 일고 혈전백호(穴前白虎) 경측(傾側)이라.

청룡측면(靑龍仄面) 분택(墳宅)이면 중풍건족(中風蹇足) 가난하고 백호측면(白虎仄面) 분택(墳宅)이면 딸자식이 전탈이라

미곤방(未坤方) 규산(窺山)이면 애기팔 음분한다
 자방(子方)의 담불 돌은 서렴정(鼠廉貞)을 불러들이고 해방(亥方)의 군저암(群猪岩)은 저렴정(猪廉貞)을 불러들이고 자손(子孫)의 괴병(塊病)이야 어디가 면할소냐
 혈전(穴前)의 침라사(針羅砂)는 정종(疔瘡)을 신음(呻吟)하고 좌우(左右)의 사충사(四冲砂)는 형륙(刑戮)에 다 죽는다
 을진수(乙辰水) 당충(當冲)하면 상패관재(喪敗官灾) 수이 설까
 모든 수세 수려하면 궁잔을 어이 하리
 용(龍)에게 생긴 것은 수여옥(水與玉)이 그 아닌가
 호(虎)에게 생긴 것은 구여장(狗與獐)이 그 아닌가
 마형(馬形)의 초(草)를 보고 우형(牛形)의 구시를 보소
 구형(狗形)의 호산(虎山)이요 사형(巳形)의 머구리라
 저형(猪形)에 맞은 것을 자세히 보아 안(案)을 찾소
 안산(案山)이 멀작시면 가까운 물을 보소
 안(案)과 용호(龍虎) 멀다 면은 삼대후(三代後)에 발복(發福)하고, 가까이서 첩첩하여 천리(千里) 밖에 조첩하면 금의(錦衣)에 싸인 자손(子孫) 화개(華蓋)로 다니느니 현두덕이 심한 모양 안산(案山)에 걸렸으면 자손(子孫)의 현순백결(懸鶉百結) 애 끓는 모양이로다.
 건방(乾方)과 병오어대(丙午魚袋) 일도인장(一道人將) 한다 하네
 수어대(水魚袋) 금어대(金魚袋)는 제 방위(方位)로 찾아 보소
 방위(方位) 안의 인사(寅砂) 모양 설부른 목표형(木杓形)과 혈전여기(穴前餘氣) 옆드린 표사(瓢砂) 해태부인(解胎夫人) 반틈 죽네
 백호(白虎)의 위(蔚)한 돌이 입 벌리고 섰는 모양 무섭다 그 밑 자손(子孫) 골육상잔(骨肉相殘) 하리로다.
 혈후(穴後)의 길이 있어 자간인방(子良寅方) 상통(相通)하니 얽어라 그 밑 자손(子孫) 음행(淫行)으로 취소한다
 안산(案山)의 흔군사(掀裙砂)는 물이 있어 윤습(潤濕)하면 어수룩한 그 종놈 안 상전을 도적한다
 태방(兌方)에는 악석(惡石)이요 인방(寅方)에는 길이니 의외에 백일내(百日内)에 살인(殺人)하고 죽단 말가. 안산(案山)의 담불 돌은 대재(大灾)에 타서 죽고
 천을태을(天乙太乙) 첩첩(疊疊)하면 고관대작(高官大爵) 대대(代代)로다.
 재상봉(宰相峰) 살펴 보소 영상(領相)도 수이 나네
 손봉(巽峰)이 높이 서도 톱 같이 찼다 하면 벼슬하던 그 밑 자손(子孫) 톱에 썰려 죽단 말가.
 진방(乙辰方) 찼다 하면 차열(車裂)하여 죽단 말가
 병오방(丙午方) 규석(窺石)이면 화형(火刑)을 만난다네.
 괴악석(怪惡石)과 규견봉(窺見峯)이 건해방(乾亥方)에 있으면은 화재(火災)는 소분(小分)인지라 단두환(斷頭患)이 문득 나네.
 을진방(乙辰方) 지네 모양 잡되게 얼켰으면 관중(棺中)의 드는 것이 오공렴정(蜈蚣廉貞) 흉악(凶惡)하다.
 미곤(未坤)에 돌이 높고 혈당(穴當)이 낮으면은 관중렴정(棺中廉貞) 무엇인고 나락 뿌리 가득 찼네
 안산(案山)의 가는 사각(砂角) 갈근(葛根) 같이 증횡하면 관중(棺中)의 흥한 것이 목근(木根)이 어지럽

다.

오방수(午方水) 번듯하여 당전(當前)을 울어 드니 자손(子孫)의 죽는 것이 남의 손에 죽단 말가
자향산(子向山) 오방수(午方水)는 영질(染疾)에 죽거니와 간향산(艮向山) 건간수(乾艮水)는 발복이 빠
르도다.

곤향산(坤向山) 하건수(下乾水)는 백일내(百日內)에 응(應)이 나고 임향산(壬向山) 간득수(艮得水)는
당대발복(當代發福) 분명 하네.

정태향(丁兌向) 병정득수(丙丁得水) 부귀(富貴)를 가지(可知)로다.

을진방(乙辰方) 장생파(長生破)나 해수(海水)는 무방(無妨)하고,미곤(未坤) 역시 장생파(長生破)나 고
색(固塞)하면 무방하니 오패(午破) 또한 그러하나 토성(土星)이면 쓸 것이요.

(이하 낙장)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